

## 제주지역 고령자의 소비자능력을 근거로 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

권 정 원\* (서울대학교 강사,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수연구원)

김 정 숙 (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)

이 기 춘 (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)

長嶋俊介 (일본 나라여자대학 생활환경학부 교수)

### - 연구의 목적 및 방법 -

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50세 이상 남녀 (총 428부)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그들의 소비자특성을 소비자능력 및 그 하위구성영역의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관련변수에 대해 고찰하였다. 본 연구의 결과는 제주지역 특유의 지역성을 반영한 고령소비자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다.

### - 결과 및 결론 -

- 1) 제주지역 고령자의 소비자능력 실태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볼 때, 66.1 점으로 나타났다. 또한 소비자지식, 소비자기능, 소비자태도는 각 57.5점, 63.5점, 78.1점으로 밝혀져 소비자태도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나, 소비자지식은 중간점을 약간 우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.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, 향후 제주지역에서는 소비자지식과 소비자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령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.
- 2) 소비자능력 및 그 하위구성영역에 대한 제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, 소비자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고, '성별'과 '배우자의 유무' 변수가 소비자기능과 소비자능력에 대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. 지금까지 가사와 가계관리권 등의 역할을 전통적으로 담당해 온 여성이 소비자기능과 소비자능력 면에 있어서 남성보다 우월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여겨지며, 기혼자녀세대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관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한 제주지역 고령자세대에게 있어 일상생활, 특히 소비생활의 정보나 의견교환을 할 상대지역활은 배우자가 할 경우가 많아져, 배우자의 존재유무는 소비자기능과 소비자능력의 수준을 높이는 배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.

본 연구는 지금까지 전무했었던 제주지역 고령자의 소비자특성을 파악하고자 시도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. 그러나,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고령자들과의 비교분석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, 소비자특성 뿐 아니라 소비자문제와 소비자교육을 종합적으로 다룬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.